

#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의 재전개 방안\*

## Adaptations and Expansions of DDC for Korean Libraries

오 동 근(Oh Dong-Geun)\*\*

### 목 차

- |                           |                          |
|---------------------------|--------------------------|
| 1. 서론                     | 재전개 방안                   |
| 2. 우리나라의 DDC 재전개의 현황과 문제점 | 3. 1 보조표(Tables)의 재전개 방안 |
| 3. DDC 제21판의 한국 및 동양관련항목  | 3. 2 본표의 재전개 방안          |
|                           | 4. 결론                    |

### 초 록

이 연구는 DDC 제21판을 대상으로 한국 및 동양관련항목의 재전개방안을 제안하였다. Table 2와 Table 5, Table 6 등 보조표의 재전개를 바탕으로 이를 본표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종교류(200)와 서예류(745.61)의 새로운 재전개안을 제시하였다. 일반백과사전(030), 일반연속간행물(050), 일반조직(060), 저널리즘 등(070), 일반전집(080), 동양철학(181), 통계(310), 법률(340), 언어(400), 문학(800), 한의학(610.95), 한국음악(789), 동양지리(915), 동양역사(950) 등의 유들에 대해 재전개안을 제안하였다.

### ABSTRACTS

This study suggests adaptations and expansions of DDC 21 for the Korean libraries. Adapted and expanded tables of Table 2, Table 5, and Table 6 are added regularly in the related subjects in the schedules. Classes of 200 Religion and 745.61 Calligraphy are newly adapted and expanded. Classes for Oriental medicine (610.95) and Korean music (789) are suggested. Other classes of 030, 050, 060, 070, 080, 181, 310, 340, 400, 800, 915, 950 are adapted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키워드: 듀이십진분류법, 문헌분류법; DDC, DDC - Adaptation, Library classification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0-041-C00561)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odroot@kmu.ac.kr)

논문접수일자 2001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자 2001년 12월 3일

## 1. 서론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는 현재 전세계 130여개 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적 분류표이다. 우리 나라 도서관에서도 특히 대규모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대학 도서관의 경우는 2000년 현재 동양서의 경우는 52.0%, 서양서의 경우는 71.3%가 이를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립대학은 『국립대학도서관보』 2001, 191; 사립대학은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http://kpula.or.kr>)의 내용 분석 결과임).

DDC의 이와 같은 국제적 이용을 두고 어느 학자는 이를 하나의 국제표준으로 간주하기도 한다(Chan 1997, 1).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DDC의 편찬자들도 미국이나 서양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DDC의 국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자국의 실정에 맞는 전개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임의규정(options)을 도입한다거나 미국 이외의 지역의 분류전문가를 분류표의 편집에 참여시키는 등의 노력이 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DDC의 미국 내지 서양중심적인 전개를 극복하는데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도서관의 입장에서 보면, 임의규정을 모든 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 이외에도, 특히 종교류(200)를 비롯한 많은 유에서는 DDC의 지시를 그대로 따를 경우는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재전개나 확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DDC를 사용하는 국내의 많은 도서관에

서는 각 도서관마다 DDC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재전개방식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DDC라는 동일한 분류표를 사용한다고 하면서도, 내용적으로 보면 그 전개방식은 상당히 다른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DDC를 도입하던 초창기(1950~1960년대)에 상당한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고, 특히 그 최신판인 제21판의 재전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 결과 일선사서들은 실제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자는 특강 등을 통한 많은 일선사서와의 만남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피부로 느꼈을 뿐만 아니라, DDC 한국어판의 발행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이에 대한 DDC 편집자들의 무관심을 보고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DDC를 사용하는 한국의 도서관들이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DDC의 재전개방식을 마련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문제점은 동양제국(諸國)을 포함한 많은 다른 나라의 도서관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DDC 자체, 특히 임의규정 등의 개선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우리 나라의 DDC 재전개의 현황과 문제점

이재철에 의하면, 한국에서 최초로 DDC를 사용한 도서관은 경성외국인학교 도서관과 연희전문학교 도서관이라고 한다. 아울러 1931년 8월에 발행된 Chosen Christian College Bulletin(연희전문학교 영문요람)의 창간호에는 DDC에 의해 도서를 분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1967, 6). 이 기록대로라면, DDC는 이제 우리 나라에서는 70여년 이상이나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DDC는 아직까지도 기본적으로 미국과 앵글로색슨 문화권에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도서관별로 그 일부항목들을 변경하여 고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김중한의 간략7판 역편본(1955), 국회도서관의 동양관계세분전개표(1959), 이재철의 전개 및 고쳐 쓰기(1966), 동국대학교도서관의 동양관계항목전개표(수정판, 1984) 등이 있고, 제21판의 재전개 예로는 김연경의 편역본(1997)과 배영환의 경북대학교도서관 수정본(1998) 등이 있다.

김중한의 역편본과 국회도서관, 동국대학교도서관의 재전개표는 원래 모두 DDC 제16판이나 그 간략판을 기초로 하여 한국에서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들을 수정한 것이다. 김중환 역편본은 박봉석의 조선십진분류법(이하 KDCP로 약칭)의 방식, 국회도서관의 재전개표는 일본십진분류법(이하 NDC로 약칭)의 방식을 기초로 하여 재전개한 것이다. 또한 동국대학교도서관 재전개표는 어느 한 특정분류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국십진분류법(이하 KDC로 약칭)과 NDC는 물론 그 밖의 여러 문헌들을 참고하고 주제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DDC의 체계에 가급적 맞추어 이들을 집약하

여 재전개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재철의 전개 및 고쳐쓰기는 DDC 제17판을 기초로 한 것으로, DDC 체계를 살려 조기성을 떨 수 있는 항목의 전개는 DDC 원표의 체계를 따르자 했으며, KDC 중 세목전개에서 합리적으로 잘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이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1967, 113-114). 김연경의 편역본은 기본적으로 국회도서관의 전개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경북대학교도서관의 수정본은 KDC와 국내 몇몇 대학도서관에서 발행한 재전개표들을 참고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아울러 DDC 동양관계항목의 재전개에 관한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으로는 최윤숙(1974), 이세원(1994), 김승환(1986) 등의 논문이 있다. 최윤숙은 국회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도서관, 이세원은 국회와 동국대, 연세대 도서관 및 이재철 재전개표 등의 DDC 재전개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김승환은 DDC 제19판을 대상으로 그 재전개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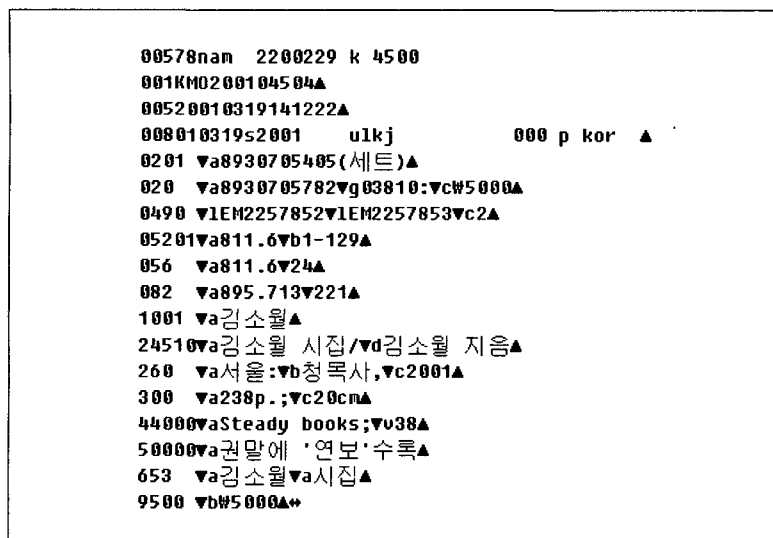
이상의 재전개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KDC와 KDCP, NDC 등 동양의 분류표들을 참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전개방식에 있어서는 편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항목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모든 재전개표에서는 자국우위(local emphasis)를 취하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동양3국을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 세부분에 각국을 재전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김연경과 경북대의 재전개표는 인도를 동양3국과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재전개표들은 어느 면에서는 DDC에서 마련하고 있는 임의규정(option)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면도 없지 않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전개가 통일적이지 못하여, 다른 도서관에서 특정의 재전개방식을 채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 때문인지는 몰라도, 현재 우리 나라의 국가 대표도서관에서 제공하는 MARC 데이터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DDC 기호가 한국관련항목이 재전개되지 않은 채로 작성되고 있다(한국시에 해당하는 김소월시집에 대해 082 필드에 895.713이라는 분류기호가 재전개되지 않은 채로 DDC 제21판 원안에 의해 그대로 부여되고 있음). 이것은 DDC의 재전개 문제가 일관(一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DDC의 발행기관인 OCLC와 DDC의 편집정책위원회(EPC)에서는 여전히 DDC의 재전개에 관해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들은 모든 재전개는 임의규정의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각국에서 DDC의 번역판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재전개항목을 EPC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요청하고 있다.<sup>1)</sup> 이와 같은 과정은 DDC의 국제적 통일성을 최대한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도서관이 OCLC와 EPC의 요구에 충실히 따르면서 재전개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모든 재전개안이 모두 그 지침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단적으로 입



<그림 1> 재전개 없이 DDC 기호를 부여하고 있는 KORMARC 데이터의 예

1) 이와 같은 조건은 본 연구자가 DDC 한국어판을 발행하고자 하는 의견조율과정에서도 DDC 편집자인 Mitchell과 심각한 의견충돌을 야기한 바 있다.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한국어판 발행조건의 전제였던 국내자문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다시 추가로 EPC의 최종승인을 받으라는 요구는 일견 부당하고 지나친 간섭으로 받아들여기에 충분하였다.

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개선안이 효과적으로 마련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DDC의 임의규정 등에 관한 새로운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종교류의 임의규정을 제안한 본 연구자의 제안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Oh Dong-Geun & Yeo Ji-Suk 2001).

### 3. DDC 제21판의 한국 및 동양관련항목 재전개 방안

이 연구에서는 DDC의 한국 및 동양관련항목의 재전개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기존의 재전개안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비교분석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DDC의 임의규정과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DDC 제21판의 재전개를 위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가능한 한 DDC의 임의규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재전개안에 최대한 반영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문자를 도입하는 임의규정은 채택하지 않고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는 안을 채택하기로 한다.

② 분류표 전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조표(Tables)의 한국 및 동양관련항목에 자국우위를 부여하여 재전개하고 이를 각 항목에 적용하도록 한다.

③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동양관련항목은 가능한 한 한곳에 모이도록 한다.

④ DDC의 전개가 지나치게 간략한 한국 및 동양관련항목의 추가세구분은 원칙적으로 KDC의 전개를 채용하여 개정에 따른 보완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지침을 바탕으로 DDC 제21판을 대상으로 한국 및 동양관련항목들의 재전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3. 1 보조표(Tables)의 재전개 방안

DDC에는 7개의 보조표가 마련되어 있다. 이 보조표의 기호들은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본표의 다른 기호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일곱 개의 보조표 가운데 특히 재전개가 필요한 보조표는 제2보조표 지역·시대·인물구분표와 제5보조표 인종·민족·국가군구분표, 제6보조표 국어구분표이다.

##### 3. 1. 1 지역·시대·인물구분표(Table 2)

지역·시대·인물구분표는 기본적으로 분류의 대상이 되는 문헌의 주제가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다루어질 때 그 특정 지역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기 위한 보조표이다(오동근 2001, 141). 이 보조표는 역사 및 지리류와 조기성을 가질 뿐 아니라, 본표의 여러 부분에서 자주 사용된다. 따라서 이 보조표의 재전개는 본표 전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보조표의 실제적인 지역구분에 해당하는 -4-9의 기호는 대륙별 구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구대륙에 이어 신대륙의 순서로 기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는 지리적, 정치적 구분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Chan, et. al. 1996, 112). 다만 그 구분이 영국과 미국을 위시한 서양의 전개는 상세한 반면, 한국을 포함한 기타 지역은 충분한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자국우위(local emphasis)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DDC 제21판에는 자국우위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떠한 임의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DDC 제21판의 대륙별 구분을 포함한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한국에 대한 지역구분에 자국우위를 부여하고, 한국의 지역구분을 상세하게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기본적인 개념은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중국에 대해 사용되던 -51을 한국에 배정하고, 일본에 대해 사용되던 -52를 중국과 일본에 할당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53에 일본과 아라비아반도를 할당하는 방법(김승환 1986, 606)이나 -53에 일본, -54에 인도를 할당하고 -53에 있던 아라비아반도를 -55 이란 아래에 통합하는 방법(배영환 1998, 323-325)과는 다른 새로

운 제안이다. 이와 같은 전개의 장점은 국내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용적인 배열순서인 “한국-중국-일본”의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재배치를 통해 한국에 대해 자국우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느 의미에서는 KDC 제4판(p.20)과 같은 전면적인 재배치(-1 아시아; -11 한국; -12 중국; -13 일본 등)도 Table 5와 Table 6와의 조기성 부여 등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이는 분류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재전개라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일본의 세분전개는 KDC의 911-913에 전개된 해당국가의 지리구분의 전개를 그대로 채용하기로 한다(KDC 4, vol.1, 881-897). 따라서 함경도는 -511, 서울은 -516, 제주도는 -5199, 대만(Taiwan)은 -524가 될 것이다.

3. 1. 2 인종·민족·국가군구분표(Table 5)

인종·민족·국가군 구분표는 어떤 주제가 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가에 한정하여 다루고 있을 때 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표이다. 이 보조표 역시 DDC의 다른 부분과 마

<표 1> Table 2의 재전개안

DDC 21	재전개안
-5 Asia Orient Far East	-5 Asia Orient Far East
-51 China and adjacent areas	-51 Korea
-511-518 Subdivisions of China	-511-519 Subdivisions of Korea
-519 Korea	-52 China and Japan
-5193 North Korea	-521-528 Subdivisions of China
-5195 South Korea	-529 Japan
-52 Japan	-53 Arabian Peninsula and adjacent areas
-53 Arabian Peninsula and adjacent areas	

찬가지로 서양중심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1 North Americans의 아래에 자국우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마련하고 있다(DDC 21, vol.1, 447). 즉 특정집단에 자국우위를 부여하거나 짧은 기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1에 해당집단을 분류하고, North Americans는 -2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임의규정을 활용하여 이 보조표를 <표 2>와 같이 재전개하고자 한다.

<표 2>의 재전개안은 기본적으로 김승환의 안(1986, 606-607)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DDC 원안의 골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임의규정을 적용하되, 배열에 있어서 “한국-중국-일본”의 순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3. 1. 3 국어구분표(Table 6)

국어구분표는 기본적으로 어떤 주제가 해당 주제의 특정언어적 측면을 다루고 있을 때 해당 언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표이다. 이 보조표 역시 DDC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서양언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만 -1 Indo-European languages의 아래에 자국우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마련하고 있다(DDC 21, vol.1, 465). 즉 특정언어에 자국우위를 부여하거나 짧은 기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1에 해당언어를 분류하고, Indo-European languages는 -91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임의규정을 활용하여 이 보조표를 <표 3>과 같이 재전개하고자 한다.

<표 3>의 재전개안 역시 기본적으로 김승환의 안(1986, 607-608)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DDC 원안의 골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임의규정을 적용하되, 배열에 있어서 “한국-중국-일본”의 순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Table 6의 재전개안은 Table 5의 재전개안과 조기성을 갖도록 배려하였다. 구체적인 활용에는 언어류 및 문학류의 재전개 부분에서 다시 고찰하고자 한다.

3. 2 본표의 재전개 방안

이 절에서는 000부터 900의 10개 주류로 구

<표 2> Table 5의 재전개안

DDC 21	재전개안
-1 North Americans	-1 East and Southeast Asian Peoples: Mundas
-9 Other racial, ethnic, national group	-11 Koreans
-95 East and Southeast Asian Peoples: Mundas	-12 Chinese
-951 Chinese	-13 Japanese
-954 Tibetans	-14 Tibetans
-956 Japanese	-18 Burmese
-957 Koreans	-19 Miscellaneous . . .
-958 Burmese	-2 British, English, Anglo-Saxons: North Americans
-959 Miscellaneous . . .	

〈표 3〉 Table 6의 재전개안

DDC 21	재전개안
-1 Indo-European languages	-1 Languages of East anc. Southeast Asia Sino-Tibetan languages
-9 Other languages	-11 Koreans
-95 Languages of East and Southeast Asia	-12 Chinese
Sino-Tibetan languages	-13 Japanese
-951 Chinese	-14 Tibeto-Burman languages
-954 Tibeto-Burman languages	-18 Burmese
-956 Japanese	-19 Miscellaneous . . .
-957 Koreans	-9 Other languages
-958 Burmese	-91 Indo-European languages
-959 Miscellaneous . . .	

분하여 재전개가 필요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재전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유 가운데 앞서 살펴본 세 개 보조표의 재전개안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을 보조표의 재전개안에 따라 재전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 1 총류(000)

총류에서 재전개가 필요한 대표적인 예들은 특히 영미중심의 전개가 두드러진 030 General encyclopedic works, 050 General serial publications, 060 General organizations and museology, 070 Documentary media, educational media, news media: journalism: publishing, 080 General collections 등이다. 그런데 본표에는 031(DDC 21, vol.1, 70), 051(p.72), 061(p.75), 071(p.86), 081(p.88)의 아래에는 각각 자국우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가운데 030과 050, 080은 언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060과 070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유들의 임의규정을 활용하고 아울러 언어를 중심

으로 하는 유들은 Table 6,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유들은 Table 5를 적용하여, 각 유들을 〈표 4〉와 같이 재전개하고자 한다. 한편 050과 080은 030과 같이 재전개하고, 070은 060과 같이 재전개한다.

다만 060과 070의 전개에서는 DDC의 임의규정에 김연경의 안(1997, 42-44)을 반영하여 재전개하였다. 즉 061 아래에 제시된 임의규정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일반단체를 068.7에 재전개하도록 하였으나, 이 재전개안에서는 이를 062 영국의 일반단체와 통합하여 재전개하였고, 071 아래에 제시된 임의규정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저널리즘과 신문을 079.7에 재전개하도록 하였으나, 이 재전개안에서는 072 영국의 저널리즘과 신문과 통합하여 재전개하였다. 따라서 062와 072의 세구분은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의 순서로 재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재전개한 이유는 원래 DDC에서는 060과 070을 지역중심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국내의 이용자에게는 영국과 미국에 관한 자료를 함께 모으는 것이 더 유용할 뿐만 아니라, 영국을 각 지역별로 추가세분하는 것이 거



〈표 4〉 총류(000)의 재전개안

DDC 21	재전개안
031 American English-language encyclopedias 039 General encyclopedic works in Italic, Hellenic, other languages .951 In Chinese .956 In Japanese .957 In Koreans	031 General encyclopedic works in languages of East and Southeast Asia .1 In Korean .2 In Chinese .3 In Japanese 032 General encyclopedic works in English: in American English-language
061 General organizations in North America 062 General organizations in British Isles .1-.8 England .9 Scotland, Ireland, Wales 068 General organizations in other geographic areas .5 Asia Orient Far East .51 China and adjacent areas .519 Korea .52 Japan	061 General organizations in Asia .51 Korea .511-519 Subdivisions of Korea .52 China and Japan .529 Japan 062 General organizations in British Isles: in North America .1 United States .2 United Kingdoms .3 Canada

의 무의미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3. 2. 2 철학류(100)

철학에서 재전개가 필요한 대표적인 예는 181 Oriental philosophy이다. 181.1 아래에는 특정국가의 철학에 자국우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의규정을 마련하고 있다(DDC 21, vol.1, 147). 즉 특정국가의 철학을 181.1에 분류하고, 181.1에 분류된 극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철학을 181.9에 재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임의규정을 사용하여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철학에 대해 우위를 부여할 경우 자리수가 길어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김연경(1997, 61-66)과 배영환(1998, 58-70), 김승환(1986, 611-612)의 안을 종합하여 이를 〈표 5〉

와 같이 재전개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재전개안에서는 “한국-중국-일본”의 배열순서를 유지시키도록 하였고, 181.2와 181.3에 각각 별도로 배치되어 있던 이집트 및 팔레스타인철학을 통합하여 간격기호(gap notation)로 남아있던 181.7에 재배치함으로써 변경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일본철학의 세분전개는 KDC의 151-153에 전개된 해당국 철학의 전개를 그대로 채용하기로 한다(KDC4, vol.1, 93-100). 따라서 조선시대의 철학은 181.15, 동학사상은 181.16, 공자는 181.2212가 될 것이다.

### 3. 2. 3 종교류(200)

DDC의 종교류는 10개의 강 중에서 220-280의 7개를 기독교에 배정하여, 기독교 중심성을

〈표 5〉 동양철학(181)의 재전개안

DDC 21	재전개안
181 Oriental philosophy	181 Oriental philosophy
.1 Far East and South Asia	.1 Korea
.11 China and Korea	.2 China
.119 Korea	.3 Japan
.12 Japan	.4 India
2 Egypt	.5 Iran
3 Palestine Israel	.6 Iraq
4 India	.7 Egypt: Palestine Israel
5 Iran	.8 Syria and Lebanon
6 Iraq	
8 Syria and Lebanon	

여실히 보여주는 유이다. 이와 같은 비판에 따라, DDC의 종교류에서는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강조하고자 할 때,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특정종교에 우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이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임의규정은 모두 하나의 종교만이 중요시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의 국교(國敎)가 있거나 국민의 대다수가 한 종류의 종교만을 가진 국가, 따라서 한 종교의 자료가 도서관장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아주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다수의 종교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는 이 임의규정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다종교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임의규정을 "Option F"로서 제안한 바 있다(Oh Dong-Geun & Yeo Ji-Suk, 2001).

이 제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220-280에 배정된 성서 및 기독교를 220으로 축소하고, 기타종교를 230과 280에 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기독교에 관련된 분류기호는 두

번째 자리에 "2"를 삽입하여 재전개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220인 Bible은 222, 232인 Jesus Christ & his family는 223.2, 285.8인 Puritanism은 228.59가 될 것이다. 아울러 230부터 270에는 불교를 비롯한 그 밖의 종교를 배정하여, 여러 종교간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특히 동양3국의 주요종교를 상위(240)에 배치시켰는데, 241 도교 및 중국유래종교, 242 천도교 및 한국유래종교, 243 신도 및 일본유래종교가 그것이다. 한편 불교(230)와 도교 및 중국유래종교(241), 천도교 및 한국유래종교(242), 신도 및 일본유래종교의 구체적인 전개는 KDC의 관련항목의 전개를 따르도록 한다. 그 이유는 이에 관련된 DDC의 전개항목이 너무 적어 한국의 도서관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종교류의 구체적인 재전개방안에 대해서는 오동근, 여지숙 2000. 참조).

이 제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이 안은 기존의 DDC 임의규정의 방식에 벗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가능한 한 DDC의 기본적인 체계를 준수하면서도, 한국도서관의 실

〈표 6〉 종교류(200)의 재전개안

DDC 21	재전개안
220-280 Subdivisions of Bible & Christianity	220 Christianity & Ancient religion
290 Comparative religion & religions other than Christianity	222-228 Subdivisions of Bible& Christianity
291 Comparative religion	229 Classical & Germanic religion
292 Classical religion	.2 Classical(Greek & Roman) religion
293 Germanic religion	.3 Germanic religion
294 Religions of Indic origin	230 Buddhism
.3 Buddhism	240 Religions of Oriental origin
.4 Jainism	241 Taoism & Religions of Chinese origin
.5 Hinduism	.9 Other religions of Chinese origin
.6 Sikhism	242 Chondoism & Religions of Korean origin
295 Zoroastrianism	.9 Other religions of Korean origin
296 Judaism	.91 Dankunism(단군교, 대종교)
297 Islam, Babism, Bahai Faith	.92 Jeungsando(증산도)
299 Other religion	.93 Daesunjinrihoi(대순진리회)
.51 Religions of Chinese origin	243 Shintoism(신도) and Religions of Japanese
.512 Confusianism	244 Jainism
.514 Taoism	245 Hinduism
.561 Shintoism	246 Sikhism
.57 Religions of Korean Origin	250 Zoroastrianism
	260 Judaism
	270 Islam, Babism, Bahai Faith
	280 Comparative religion
	290 Other religions

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전개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2. 4 사회과학류(300)

사회과학류에서 재전개가 필요한 대표적인 예는 310과 340다.

310 Collections of general statistics의 314-319에 전개된 각국의 통계는 기본기호 31에 앞서 제시한 재전개된 Table 2의 기호를 붙여 재전개하도록 한다. 따라서 한국의 통계는 315.1, 서울의 통계는 315.16, 일본의 통계는

315.29가 될 것이다.

340 Law의 경우는 DDC는 기본적으로 영미법 위주로 전개되어 있어 대륙법계통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김자후 1996, 71). 또한 특정주제에 관련된 법들을 343-344에 함께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도서관의 일반적인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 아울러 국내도서관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 특유의 특정법들을 해당법이 만들어질 때마다 DDC를 재전개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340 법률의 재전개는 전적으로 KDC에 따르도록 권고하고자 한다. 김연경(1997)과 배영환(1998)의 안을 비롯한 대부분의 재전개안들이 실질적으로는 KDC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이유도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법률류의 재전개안은 <표 7>과 같다.

3. 2. 5 언어류(400) 및 문학류(800)

언어류와 문학류는 각각 서양언어와 서양문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다. 즉 각국어나 각국문학에 배정되는 강들은 모두 영어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라틴어, 고대 그리스어 등 서양언어와 서양문학이 차지하고 있고, 그 밖의 언어와 문학은 각각 490과 890이라는 단 하나의 강에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DDC에서는 특정언어와 특정문학에 대해 자국우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마련하고 있다(DDC 21, vol.2, 864; vol.3, 75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임의규정과 앞서 살펴본 Table 6 언어구분을 활용하여 언어류와 문학류를 재전

개하고자 한다. 언어류의 재전개안은 <표 8>과 같다.

언어류의 재전개에 있어서는 410 아래에 설정된 임의규정에 따라, 410에 한국과 중국, 일본 및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언어를 재전개하고, 410에 분류되었던 언어학을 400, 그 세부분을 401-409에 재전개하였다. 이 전개방식은 김승환(1986, 615)의 안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인도어를 414에 배치한 김연경(1997, 175-180)이나 국회도서관(1959, 91-94)의 안이나, 기타동양어를 415에 통합한 배영환(1998, 178-181)의 안, 한국어를 410, 중국어를 419, 일본어를 419.9에 재전개한 이재철(1967, 27)과 동국대학교(1984, 87-99)의 안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언어의 계통적 관계를 중시한 DDC의 Table 5의 골격을 가능한 한 준수하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을 대등한 수준에서 다루기 위한 배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문학류의 전개는 810 아래에 설정된 임의규정에 따라, 810에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문학을 400의 예에 따라 재전개하고, 810에 분류되

<표 7> 법률(340)의 재전개안

DDC 21	재전개안
341 International law	341 International law
342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342 Constitutional law
343 Military, defense, public property, public defense, tax, trade, industrial law	343 Administrative law
344 Labor, social service, education, cultural law	344 Criminal law
345 Criminal law	345 Civil law
346 Private law	346 Commercial law
347 Civil procedure and courts	347 Judicial systems
348 Laws, regulations, cases	348 Other laws and regulations
349 Law of specific socioeconomic regions and of specific jurisdictions and areas	349 Foreign laws

〈표 8〉 언어류(400)의 재전개안

DDC 21	재전개안
400 Languages	401-409 Subdivisions of Linguistics
410 Linguistics	410 Languages of East and Southeast Asia
420 English and Old English	Sino-Tibetan languages
430 German Languages German	411 Koreans
440 Romance Languages French	412 Chinese
450 Italian, Sardinian, Dalmatian, Romanian,	413 Japanese
Rhaeto-Romanic languages	414 Tibeto-Burman languages
460 Spanish and Portuguese languages	418 Burmese
470 Italic languages Latin	420 English and Old English
480 Hellenic languages Classical Greek	430 German Languages German
490 Other languages	440 Romance Languages French
495 Languages of East and Southeast Asia	450 Italian, Sardinian, Dalmatian, Romanian,
Sino-Tibetan languages	Rhaeto-Romanic languages
.1 Chinese	460 Spanish and Portuguese languages
.4 Tibeto-Burman languages	470 Italic languages Latin
.6 Japanese	480 Hellenic languages Classical Greek
.7 Koreans	490 Other languages

있던 미국문학을 820 영국문학과 통합하도록 한다.

### 3. 2. 6 자연과학류(500) 및 기술과학류 (600)

자연과학류에서는 550 Earth sciences의 514-519에 전개된 각국의 지구과학의 재전개가 필요하다. 이 경우는 앞서 살펴본 통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기호 55에 재전개된 Table 2의 기호를 붙여 재전개하도록 한다. 따라서 한국의 지학은 555.1, 서울의 지학은 555.16, 일본의 지학은 555.29가 될 것이다.

기술과학류에서 재전개가 가장 필요한 유는 한의학(Oriental medicine)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승환(1986, 616)은 기타의학의 아래인 618.1, 김연경(1997, 213)은 의학사 아래인

610.95, 배영환(1998, 260)은 약리학 아래인 615.32에 분류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각 안마다 그 상위주제에 비추어 볼 때 일리가 있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다른 기호와의 중복문제도 피하면서, 지역구분의 아시아에 해당하는 -5와도 조기성을 갖는 610.95를 한의학의 기호로 추천하고자 한다. 그 세구분의 전개는 KDC의 519 한의학(vol.1, 522-525)의 내용을 따르도록 한다.

### 3. 2. 7 예술류(700)

예술류에서 재전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서예(Calligraphy)와 한국음악(Korean music)이다.

서예류의 경우는 김승환(1986, 617)은 도화 및 장식예술 아래의 미사용기호인 744, 김연경

(1997, 269-270)과 배영환(1998, 347)은 741.3에 재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DDC 제21판에는 이미 745.61에 서예에 관한 유가 설정되어 있는만큼, 최소한의 변경을 통해 이를 활용하고 그 세구분만을 KDC의 예(vol.1, 788-790)를 따라 재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서예의 기본번호 745.61에 KDC의 64 다음의 기호를 추가하여 재전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 서서예는 745.6113, 한글서법은 745.6131, 낙관은 745.617, 붓은 745.6191이 될 것이다. 서예의 재전개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한국음악류의 경우는 김승환(1986, 618)은 789.1, 김연경(1997, 282-283)과 배영환(1998, 365-367)은 DDC 제21판의 음악의 작곡자와 전통에 대한 임의규정인 789에 재전개하고 있다. 이미 DDC 제21판의 789 아래의 임의규정도 이 기호를 음악의 전통에 대한 기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DDC 21, vol.3, 685: Option B)에 비추어, 789를 한국음악의 기호로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그 세구분의 전개는 KDC의 679 국악의 세구분을 따르도록 한다.

### 3. 2. 8 역사류(900)

역사류에서 재전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각국지리(913-919)와 각국역사(930-990)이다. 두 경우 모두 해당주체의 기본기호에 재전개된 Table 2의 기호를 붙여 재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각국지리는 기본기호 91, 각국역사는 기본기호 9에 재전개된 Table 2의 기호를 추가하여 분류기호를 완성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세구분은 Table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KDC의 예를 따른다. 따라서 한국지리는 915.1, 서울지리는 915.16, 일본지리는 915.29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사는 951, 서울의 역사는 951.6, 일본사는 952.9가 될 것이다. 이를 950 General history of Asia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DDC 제21판을 대상으로 한국 및 동양관련항목의 재전개방안을 고찰하였다. 기존의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재전개안을 제시하였다.

<표 9> 서예류(745.61)의 재전개안(일부)

DDC 21	재전개안
745.6 Calligraphy, heraldic design, illumination	745.6 Calligraphy, heraldic design, illumination
.61 Calligraphy	.61 Calligraphy
.619 Style	.611 Style of penmanship of Chinese character
.619951 Chinese calligraphy (합성기호임)	.612 Style of handwriting
.619956 Japanese calligraphy (합성기호임)	.613 Style of penmanship of Hangeul
.619957 Korean calligraphy (합성기호임)	.614 Other styles
.66 Heraldic design	.66 Heraldic design

〈표 10〉 아시아역사(950)의 재전개안(일부)

DDC 21	재전개안
950 General history of Asia Orient Far East	950 General history of Asia Orient Far East
951 China and adjacent areas	951 Korea
.1-.8 Subdivisions of China	.1-.9 Subdivisions of Korea
951.9 Korea	952 China and Japan
.93 North Korea	.1-.8 Subdivisions of China
.95 South Korea	.9 Japan
952 Japan	953 Arabian Peninsula and adjacent areas
953 Arabian Peninsula and adjacent areas	

① DDC의 임의규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아라비아숫자기호의 순수기호법을 준수한다.

② 재전개된 보조표(Tables)의 한국 및 동양관련항목을 분류표 전체에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③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동양관련항목은 가능한 한 한곳에 모이도록 한다.

④ 한국 및 동양관련항목의 추가세구분은 원칙적으로 KDC의 전개를 채용한다.

이에 따라 DDC 제21판의 Table 2와 Table 5, Table 6를 우선적으로 재전개하고 이를 역사, 지리, 언어, 문학, 총류 등의 관련주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표에서는 종교류(200)에 대해 기존의 재전개안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재전개안을 제시하였고, 서예류(745.61)에 대해서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안을 제시하였다. 그 밖의 유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론

적 바탕 위에 이를 개선안의 형식으로 제안하였다. 다만 특정주제나 항목의 단순한 추가에 관련된 재전개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와 관련된 후속의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이 연구의 제안들은 DDC를 사용하는 현장의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통해 추가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이 연구는 DDC를 한국에서 적용하기 위한 표준적인 전개방식을 설정하는 데 일조(一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의 다른 나라, 특히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DDC 자체의 임의규정을 개선하는 데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DDC 한국어판이 발행된다면 그 기초자료로서도 대단히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의 성과는 이론과 실제에는 물론 국내외적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2001.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9집.
- 국회도서관, 편. 1959. 『듀이十進分類表: 主類表, 主綱表, 主目表』. 서울: 국회도서관.
- 김승환. 1986. DDC 19판 사용에 따른 한국 및 동양관계 주제전개 연구. 『논문집』.(강남대) 16: 599-621.
- 김연경. 편역. 1997. 『제21판 Dewey 십진분류법: 동양관계세분법』. 서울: 금문서적.
- 김자후. 1996. 법률학분야의 문헌분류법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중환. 역편. 1955. 『듀이십진분류법』.(축소제7판). 서울: 국립도서관.
- 남태우. 1996. DDC21판의 개정내용과 그 특성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4): 85-104.
- 배영환, 편. 1998. 『듀이십진분류법: 제21판 경북대도서관 수정본』. 대구: 경북대도서관.
- 변우열. 1992. 종교류 문헌분류 전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오동근. 2001. 『DDC 연구』. 대구: 태일사.
- 오동근, 여지숙. 1998.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 21판 임의규정의 적용방안. 『도서관학논집』. 29: 313-342.
- 오동근, 여지숙. 2000.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 종교류(200)의 재전개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2): 253-278.
- 이세원. 1994. DDC에 있어서 동양관계항목의 발전 및 고쳐쓰기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철. 1966. 『한국도서관을 위한 듀이십진분류법(제17판)의 전개 및 고쳐쓰기표』. 미고정판(상), 서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 이재철. 1967. 한국에 있어서의 듀이십진분류법(상, 중, 하): 그 역사와 전개 및 고쳐쓰기에 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4(7): 5-14; 8: 18-28; 9: 24-29.
- 정연경. 1996. 듀이십진분류표의 인쇄형과 전자형 비교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3(2): 97-120.
- 최윤숙. 1974. 우리나라 도서관의 DDC 동양부문 전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편. 1996. 『한국십진분류법』 (KDC).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  
<http://kpula.or.kr>.
- Bloomsberg, Marty & Hans Weber. 1976. *An Introduction to classification and number building in Dewey*.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 Chan Lois Mai, 1997. Opening remarks. In: Lois Mai Chan & Joan S. Mitchell ed.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Edition 21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Forest Press).
- Chan, Lois Mai & Joan S. Mitchell, ed. 1997.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Edition 21 and international pers-*



- pectives. New York: Forest Press.
- Chan, Lois Mai, et. al. 1996.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 practical guide*. 2nd ed. New York: Forest Press.
- Dewey, Melvil. 1996.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1st ed. New York: Forest Press.
- Mitchell, Joan S. 1995. Options in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System: the current perspective.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 19, No. 3/4: 89-103.
- Oh Dong-Geun & Yeo Ji-Suk. 2001. Suggesting an Option for DDC Class Religion (200) for Nations in which Religious Diversity Predominates. *Knowledge Organization* Vol. 28, No.2: 75-84.
- Osborn, Jeane. 1991.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0th ed: a study manual*, rev. ed. Englewood, Colo.: Libraries Unlimited.
- Satija, M. P. and J. P. Comaromi. 1987. *Introduction to the practice of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New York: Envoy Press.